



진안군 마령면 '약선암', 12년간 이어진 선행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에 위치한 약선암(대표 정해)은 12년간 이웃들을 위한 백미 후원을 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약선암은 지난 2010년 첫 백미 기탁을 시작으로 매년 빠짐없이 마령면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백미를 기탁하고 있다. 18일에 백미 100kg 기탁을 했으며, 앞서 4월에도 백미 100kg을 후원하는 등 올해만해도 200kg에 달하는 백미를 기탁해 관내 주민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위한 캠페인 전개

남원시는 남원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지난 18일, 남원농협 오거리 일대에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관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거리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전했다.

이날 캠페인은 남원시 관내 23개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50여명이 참여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불법행위 집중단속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소방시설 등 차단행위의 위험성 및 불시단속 및 홍보 ▲불시 소방특별조사 실시 및 피난계획 수립여부 등 컨설팅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홍보 ▲자율개선을 위한 피로그램 설치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

신고포상제는 건축물의 비상구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방시설 설치·유지의 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영·호남 의용소방대원들 무주서 만나

화합·친선 도모·선진 소방기술 공유 위한 교류행사 가져

2022 의용소방대 영·호남 교류행사가 지난 18일 무주군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무주군(남성회장 이호상, 여성회장 윤정순)과 의령군 의용소방대(남성회장 최창식, 여성회장 조현숙)원들이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고 선진 소방기술을 서로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무주읍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두 지역 의용소방대를 비롯해 장승과 의령소방서, 그리고 군청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만남의 시간과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 무주군 의용소방대 이호상 연합회장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만남의 제약이 따랐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만나 기쁘다"며 "진정한 친구로서 기쁨이 잡힌 만큼 서로의 안녕을 위해 역량을 모아가자"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희옥 무주군수 권한대행은 "활동 지역은 서로 다르지만 국민의 안전과 평안을 지키고 있다는 사명과 자긍심만은 같을 것"이라며 "의령과 무주군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함께 하고 있다는데서 두 지역의 발전과 주민행복이라는 큰 희망을 본다"고 말했다.

또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서로 돕고 상생하는 의용소방대가 되길 바란다"며 "영·호남 교류행



사가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를 더하며 더욱 활성화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기념식 후에는 두 지역 의용소방대원들이 덕유산 항적봉에 함께 오르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무주군과 의령군 의용소방대는 지난 2005년 11월 자매결연을 맺은 후 18년째 상호 방문을 통한 교류 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무주군에서는 6개 읍면 13개 남녀 의용소방대에서 270명의 대원들이 각종 화재와 사고, 방역현장 등 곳곳에서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여성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수료생 밀반찬 봉사

남원여성새일하기센터(센터장 양병오)는 지난 18일, 코로나19 폭도 마음도 지친 우리 이웃들의 입맛을 돋을 밀반찬을 만들어 관내 홀몸어르신 및 저소득가정 등에 밀반찬 지원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요리료 배움과 나눔 밀반찬 만들기 봉사는 2021년 직업교육훈련 단체급식 조리사 밥을 짓다 과정의 수료생들이 봉사단을 구성, 사회복지시설, 저소득가정세대 등에 대해 현재까지 꾸준히 자원봉사 활동 추진하고 있다.

배움을 통한 나눔 실천으로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봉사활동은 마미순지원봉사단, 교육체육과 직원 등 11여명의 봉사자들이 밀반찬을 만들어 왕정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인재양성과,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김제시 인재양성과(과장 이성문)는 18일 김제시 신풍동 예동마을 소재 농가를 방문하여 고구마 모종 심기 등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성문 과장 외 10여 명이 참석해 150평 규모의 고구마밭에서 농촌일손 부족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구마 모종 심기 및 일손 부족으로 방치된 영농 폐기물 수거 등 생산적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펼쳐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신풍동 복지기동대, 주방 소화설비 설치 봉사

김제시 신풍동 복지기동대(대장 김상봉)는 저소득 독거노인 세대의 주방 천정 소화설비 설치 봉사활동을 펼쳤다.

신풍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세대를 대상으로 삶의 편의성을 높여주기 위해 매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주거 상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으로 복지기동대는 관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세대 중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10세대의 주방 천정에 자동 확산 소화설비를 설치하여 화재 위험성을 대비하게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군, 부부의 날 맞아 모범부부 표창패 수여

진안군은 18일 군청 상형실에서 가정의 달과 부부의 날을 맞아 아름다운 부부들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모범 부부를 선정해 표창패를 수여했다.

군은 모범부부를 발굴하고 격려함으로써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을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시행하는 모범 부부상은 읍·면장 추천과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12쌍의 부부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선정된 부부는 ▲진안을 권순택, 이현순, ▲진안을 김일원, 김영희, ▲용담면 조성운, 김옥희, ▲안천면 황의범, 김정희, ▲동향면 김종백, 박선영, ▲상전면 이춘형, 구찬숙, ▲백운면 이택영, 김순자, ▲성수면 차상기, 이귀자, ▲마령면 이상길, 김순은, ▲부귀면 이영만, 백현수, ▲정천면 임종만, 김순이, ▲주천면 안치홍, 피오우찬라 총 12쌍의 부부가 수상했다.

주요 공적으로는 ▲활발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한 부부, ▲사랑과 신뢰로 배우자의 병환을



부부들로 극복한 부부, ▲다문화 가정으로 문화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름을 이해하여 평등한 가족문화에 기여한 부부 등이다.

김창열 부군수는 "5월 21일 부부의 날은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문화를 만들고 가족의 소중함과 의미를 생각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오늘의 행사가 가족친화 사회 분위기 조성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6-2404	남원지사 632-0985	정읍지사 536-3767
호지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658-98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진안 주천면 주민자치위원회, 환경정화활동 펼쳐

진안군 주천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조수행)는 18일 운일안반일암 구름다리개장을 앞두고 운일안반일암 계곡과 탐방로 등을 중심으로 쓰레기 줍기 등 대대적인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운일안반일암 구름다리 개장을 맞아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야외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휴가철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환경정화활동을 펼치게 됐다.

운일안반일암은 기암절벽의 멋진 절경과 깨끗한 계곡수가 흐르는 관광지이지만 휴가철 내 수많은 피서객과 관광객이 남기고 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 주민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